

# 자주빛 따스한 폐광촌



노여운 작 '남겨지다, 화순 따스하다'

## 경북미술문화원 '화순, 남겨짐에 관하여' 27일까지 레지던시 결과展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가 자리잡은 화순군 동면 북암리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탄광이 위치한 곳이다. 전성기인 1970~80년대는 주민 약 5000명이 살았던 곳으로 화순읍 인구수보다 많았다고 한다. 이곳에 1960년대 세워진 경북초등학교는 한때 학생수가 600명이 넘는 정도로 시골학교치고는 큰 규모를 자랑했다. 하지만 석탄산업의 쇠퇴와 더불어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경북초는 지난 2001년 화순 동면초등학교에 통합되며 폐교하게 된다.

### 폐교 새 단장 10년째 레지던시·전시관 활용

### 작가 5명 8개월간 화순 다룬 작품 20점 선배

이들해 경북분교는 서양화가 이석원(61) 대표의 눈에 띄어 경북미술문화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각 층에 5칸씩 교실을 갖춘 2층 건물과 급식실로 사용되던 별관, 관사 등 부속건물, 넓은 운동장은 작품활동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또 오래된 고목들이 둘러싸고 있고 무등산 자락에 위치해 경관과 자연환경이 탁월한 곳이다. 원래 급식실이었던 체합실에서는 조각, 도예 등이 진행되고 운동장에서는 1m 이상의 설치작품들을 볼 수 있다. 평균 75세 이상 고령화가 된 인근 7개 마을에 마을의 유래를 상징화한 조소 작품을 만들어주는 등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하다. 설립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경북미술원은 젊은 작가들의 레지던시 공간 및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



화순 경북미술문화원 운동장에 설치작품이 즐비하다.

다. 2층 5개 교실은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쓰이고 1층은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개최되는 2015 레지던시 결과展 고전은 처음으로 화순에 관한 주제를 다뤘다. '화순, 남겨짐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노여운, 박기태, 이다에, 이재호, 전승 등 5명의 작가들이 지난 8개월간 화순 탄광, 적벽 등 지역 이야기를 다룬 작품 20여점을 전시한다.

노 작가의 회화 '남겨지다, 화순 따스하다'는 화순 탄광을 소재로 삼았다. 석탄을 쌓아놓은 창고와 창고 앞에 서 있는 한그루 나무·주차된 트럭은 어디서 본 듯 평범한 풍경이다. 자주색으로 외곽선을 그리고 하늘은 연보랏빛 묘사한 노작가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채도가 낮지만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는 아니다. 화순의 모습을 기록한 그의 작품은 아련함이 전해진다.

노 작가는 "화순 경북미술원은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주위에 시냇물이 흐르는 등 사색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며 "평소 오래된 공간이나 사람의 흔적을 다뤘는데 화순 탄광 등 새로운 작품 소재를 얻을 수 있었다"고 레지던시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박기태 작가는 설치미술, 이다에 작가는 돼지를 소재로 한 회화, 이재호 작가는 한국화, 전승 작가는 사진작품을 출품했다. 전시기간에는 오픈스튜디오도 함께 진행돼 작가의 작업실을 구경하고 작품 제작 과정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경북미술원은 화순에 문화활력을 불어넣고 작가들도 작품 활동에 열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연예진 방문하면 멋진 자연 경관 속에서 미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1-372-8976. /김용희기자 kimyh@

## 오용석 개인전 30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작가 오용석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어딘가 불안하다. 짙은 보라색 바탕 속에 등장한 흐릿한 흰색 도베르만은 초점이 없는 시선으로 관람객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다.

붉은 색의 과감한 붓터치는 도베르만의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다. 마치 피가 흘러 내린 듯 작품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전한다.

지난 2014년 제 16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오 작가의 개인전이 '우리를 위한 셋 THREE OF US'를 주제로 30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오 작가는 수상 당시 강렬한 색채 대비와 대담한 구성력을 통해 깊이 있는 성찰과 예술적 언어를 보여준다는 평을 들은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 오씨는 불안, 공포, 쾌락과 같은 인간의 본성을 모티브로 특유의 몽환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담아낸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작품 'Horn'(뿔)은 흰색과 노란색이 어지럽게 섞여있는 배경 가운데 뿔 모양의 형상이 위치하고 있다.

오씨는 관람자의 경험과 기억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오씨는 약 10년 뒤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학과 및 대학원과정을 다시 졸업한 특이한 이력이 있다.

한편, 신세계갤러리는 '50자평, 나도 평론가'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는 전시 아트상품을 증정한다.문의 062-360-12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If I had a voice'

## 황하문명 이전 '홍산문명'의 신비

### 대한사랑 광주지부 17일까지 광주시의회서 유물·사진전



중국 우허양서 발굴된 여신상.



중국 요령성서 발굴된 옥용룡.

1980년대 중국 내몽골 자치구와 요령성 접경 지역에서 세계 4대 문명보다 1000~2000년 앞선 신석기 문화가 발굴된다. '홍산문화'다. 여신상과 옥귀걸이, 옥룡 등 유물들이 출토되며 중국 고대 문화와 명백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 지역에서 발굴된 비파형 청동검은 만주와 한반도에서 나온 것과 비슷해 홍산문화는 고조선 등 한반도 초기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대한사랑 광주지부(지부장 신상남)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7일까지 광주시의회 로비에서 '홍산문명 유물·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물 50점, 사진자료 50점 등이 전시돼 한민족의 시원문화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상(BC 3500년 추정)과 옥용룡(BC 3000년), C자형 옥조룡(BC 3000년) 등 대표 유물과 만주에서 발견된 빛살무늬 토기, 청동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신상남 지부장은 "홍산문명은 이미 5500년 전에 제정일치의 국가조직을 갖춘 상고 문명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근거"라며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한민족의 뿌리와 올바른 역사를 만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사랑 광주지부는 13일 오후 2시 정전제 전남과학대 교수를 초청해 '흑피옥으로 살펴본 한민족의 옥문화'를 주제로 현장특강을 진행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외국인들의 남도음식 솜씨는?

###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28일 한식요리 경연대회

외국인들이 한식의 손맛을 겨루는 경연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통문화관 전통음식 체험전수실에서 '외국인 한식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한식의 맛과 남도 전통음식문화를 알리기 위한 행사다.

대회 경연종목은 한국음식(남도향토음식)으로, 경연팀은 1팀당 1~2인으로 총 16팀이다. 오는 21일 마감하는 참가신청서에는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신청인이 직접 만든 컬러 음식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서류심

사를 통과한 16팀이 오는 28일 2차 본선에서 경연한다.

본선에서 6팀은 각각 대상 1팀 50만원, 최우수상 1팀 30만원, 우수상 1팀 20만원 등 상금과 상장을 받는다.

경연대회 식재료 및 조리도구는 참가자가 직접 준비해야하며, 전시 및 조리테이블, 가스레인지, 생수는 주최측에서 제공한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재료비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한 외국인이면 모두 경연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지(<http://www.gjcf.or.kr>)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http://gtcc.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21일까지 전통문화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문의 전통문화관 062-232-150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전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한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